

韓日 해공군 '어깨동무'

ⓒ 이정훈기자 | ㉠ 승인 1996.09.12 00:00

군함 상호 방문·최신에 전투기 교환 조종 등 교류 활발



9월1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유키호(3천t급)와 연습함 카시마호(4천t급)의 부산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교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함대의 한국 방문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드러낸 것은 兪日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였다. 이들은 일본 함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날 진해 제3함대 사령부 앞에서 일본 함대 방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야마다 미치오(山田道雄) 소장이 이끄는 일본 순양분대는 해상자위대 소속 3위(한국 해군의 소위에 해당)들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학교(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3위생들은 실무 부대에 배치되기 직전 세계 일주 훈련에 참여하는데, 이 훈련의 마지막 기착지로 부산항에 들어온 것이다. 한국 역시 해사 4학년 생도들로 순양분대를 구성해 세계 일주 훈련을 한다. 한국 순양분대가 94년 일본을 방문해, 답방 형식으로 일본 함대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한·일간 군사 교류는 공군 쪽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24일 일본 주재 한국 무관 오원용 공군 대령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내에서 면허 생산한 최신에 전투기 F15J를 시범 조종한 것이 그것이다. 한국 주재 일본 무관 이와키리 시게오(岩切成夫) 일좌(대령)는 80년대 초 '평화의 가교(Peace Bridge)'라는 암호명으로 미국에서 도입한 한국 공군의 최신에 전투기 F16C/D기를 9월11일쯤 시험 조종할 계획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무관부를 설치했으나 양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직접적인 군사 교류를 피해 왔다. 그러면서도 미국 해군이 주축이 된 림팩훈련에는 함께 참여하는 등, 군사동맹 관계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합동군사훈련 단계로까지 발전해왔다. 95년 9월에는 에토 세이시로 일본 방위청장관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지난 5월에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군사 전문가 "군사 교류가 긴장 완화에 도움"

냉전 종식 후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사 교류가 매우 활발해진 느낌이다. 지난 8월 말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의 기함 블루리지호(1만8천t)가 을지훈련 참가차 부산항을 방문했다. 지난 7월에는 하얼빈호(4천t)를 기함으로 한 중국 북해함대가 북한 남포항을 방문했고, 한국 해군은 1천6백t급 호위함 2척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방문했다.

이러한 교류에 대해 한 공군 장교는 열강이 군사력을 앞세워 한반도로 물려들던 구한말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구한말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도 한방 먹일 만큼의 힘은 갖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군사 관계자들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군사 교류가 한국군의 군사력 정비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